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5〉

# 선악시비 벗어나야 부처

학승이 물었다.

"출가하여 맹세코 무상(無上)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직 출가하지 않았을 때는 지혜에 쓰임을 당하고, 이미 출가한 이후는 지혜를 사용하는 거야."

問 未審出家誓求無上菩提時如何
師云 未出家被菩提使 既出家使得菩提

출가는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타는 집은 욕망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활활 타는 집이다. 무상지혜는 최상의 지혜를 말한다. 출가하여 무상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선악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善)도 없고 악(惡)도 없으며 옳은 것[是]도 없고 그른 것[非]도 없는 것이 진리이다.

수행자는 선악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악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운 자가 있고 범죄가 있고 잘 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게 된다. 이런 차별심이 있는 상태에서 지혜를 사용하면 그 지혜는 어디까지나 용광로에 떨어지는 눈[雪]과 같을 뿐이다. 사용한 그 지혜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지혜를 계속 내놓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이런 지혜는 세상에 끌려 다니는 유랑지혜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악시비에서 벗어나면 세상사가 한 눈에 드러나게 된다. 무엇이 근원적인 처방인지 그 맥이 정확히 파악된다. 따라서 선악시비를 벗어난 사람이 한번 지혜를 사용하면 그 지혜는 매우 적합한 지혜가 되므로 오랫동안 유효하게 된다.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지혜에 끌려 다니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조주 스님이 하루는 외출을 했다가 한 노파가 논에 볏모를 심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

"만일 사나운 범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파가 말했다.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나의 마음의 상대가 되는 것은 없어요."

**출가 전에는 지혜에 쓰임 당하고**
**출가 후에는 지혜를 사용하는 것**

조주 스님이 "퇴옛!"하고 침을 뱉어보았다.
그러자 노파도 "퇴옛!"하고 침을 뱉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직도 그게 있잖아."

師因出外 見婆子插田云 忽遇猛虎作麼生
婆云 無一法可當情
師云唋
婆子云唋
師云 猶有者箇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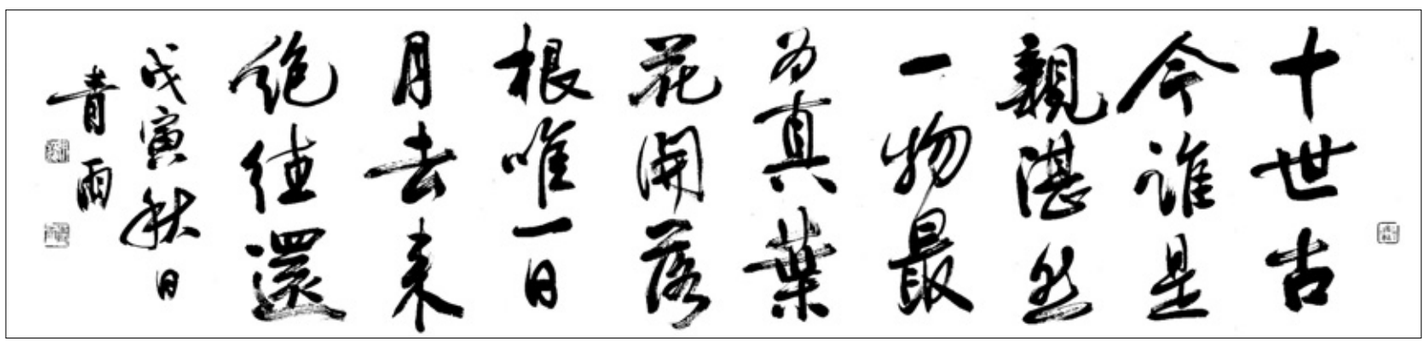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마음에 상대가 되는 것이 없다면 가히 여장부이다. 조주 스님은 정말 그런가 하고 노파에게 침을 뱉어서 시험해본 것이다. 그랬더니 노파도 당당히 침을 뱉어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상대하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범과 여자가 싸울 때 이런 식의 상대는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뿐이다.

정말로 어떤 것도 마음에 상대가 안 된다면 한 낱 침 뱉는 것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교도가 바로 눈앞에서 험악하게 험담을 해도 전혀 상대하지 않았다. 이교도가 돌아간 뒤에 부처님의 제자 아란이 어찌하여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부처님께 묻자, 부처님은 허공 위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아란에게 되물었다. 당연히 그 침은 자신의 얼굴에 떨어질 것이다. 험담에 대응하지 않으면 말한 사람이 그 험담을 도로 가지고 가게 되어있다는 가르침이다.

'아직 그게 있잖아'라는 말은 아직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말이다. 걸림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면 진정한 장부라고 할 수 없다. 침 뱉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단지 침을 뱉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안다면 마음에 걸림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때 노파가 어떻게 말하면 되겠는가? 만일 본 납자라면 "겨우 침이나 뱉는 사내로구먼"하고 말하겠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④ 禪詩(선시)



청무절월근화위일친금십
우인왕거유개진물담수세
추환래일락엽최연시고
일 일

誰 : 누구 수
湛 : 괼 담, 잠길 침
絶 : 끊을 절
還 : 돌아올 환

## 꽃 피고 잎 지나 그 뿌리는 하나

十世古今誰是親 湛然一物最爲眞 葉花開落根唯一 日月去來絶往還(십세고금수시친 담연일물최위진 엽화개락근유일 일월거래절왕환)

십세고금에 어떤 것이 나의 참인가 담연한 한 물건이 진정한 나일세 꽃 피고 잎 지나 그 뿌리는 하나라 해가 뜨고 달이 져도 가고 옴이 없구료.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선어록 해제 35 한국선과 선어록 6 선문보장록

# 선의 우월성 강조한 선서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은 선문에서 중요시해 온 글들을 모은 것이다. 곧 기존부터 내려오던 선에 관련된 찬술서 가운데서 고려 중기의 진정대선사 천책이 발췌해 엮은 선서이다. 특히 전등사서에서 금과옥조와 같은 내용만 골라서 엮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선과 교를 대비시켜 가면서 선이 교학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

찬술자 진정국사 천책은 생몰 연대조차 확실하지 않다. 탄생 연도에 대해서는 1206년 내지 1209년의 학설이 있고, 입적 연도마저 분명하지 않지만 1293에 〈선문보장록〉에 서문을 붙인 점으로 보아 그 이후인 것으로 짐작된다. 속성은 신(申)씨로서 고려 태조 때 공신이었던 신염달의 제11대손이다. 약관의 나이에 예부시에 급제한 후 20대 초반에 원묘국사 요세를 참문하고 천태종으로 출가했다. 30대 후반에 동백련사 주지 및 만덕산 백련사 주지를 지냈다. 〈선문보장록〉에다 1293년에 서문을 붙인 것을 1307년 이혼(李混)이 발문을 붙여 간행했다. 전체 구성은 천책의 서문, 본문 86단락, 몽암거사 이혼의 발문으로 이뤄져 있다.

〈선문보장록〉에서 교학보다 선을 우위에 두고, 나아가서 선교차별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은 신라 말기에 본격적인 선법이 수입되면서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은 당시에 선의 대세가 조사선 위주의 선풍이었던 것으로부터 나아가서 여래선보다 조사선이 우월하다는 풍조의 반영이기도 하다.

**움직이는 것은 바람·깃발 아닌 '마음' 등**
**교학자 감화시켜 선문 귀의한 사례들 수록**

조사라는 개념은 보리달마로부터 연유하는 개념으로서 보리달마를 종조로 하는 선종의 자파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곧 한국에 수입된 초기 선법의 성격이 바로 조사선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선문보장록〉에는 교외별전의 종지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가한다. 그 유래에 대해서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귀조사설'과 '무설토론'을 비롯한 선법 우위의 내용을 선별해놓은 것은 한국선의 특징 내지 조사선풍의 전승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다.

〈선문보장록〉은 상 · 중 · 하 3권으로 구성돼 있다. 상권에서는 선교대변문(禪敎對辨門)이라는 제목으로 25칙을 수록했다. 이 대목은 선과 교학을 상대적인 입장으로 간주해 그 차이 및 우월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선문의 권위와 우위를 강조했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사나불이 보리수 아래서 비로소 정각을 성취했을 때 이심전심과 불립문자의 방식으로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돈증(頓證)하고 돈오(頓悟)케 했다. 그런데 오직 가섭상좌만 그와 같은 비밀스럽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지에 들어갔고, 나머지 문수와 보현 등 팔만의 보살대중은 가섭이 들어간 경지를 알지도 못했다.]

중권에서는 제강귀복문(諸講歸伏門)이라는 제목으로 25칙을 수록해 교학자가 교학의 열등함을 알고서 선문으로 귀의하게 된 계기 및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인종 법사는 법성사에서 〈열반경〉을 강의했다. 혜능 대사가 법성사의 행랑채에서 잠시 쉬어가는 참이었다. 밤이 되어 부는 바람에 깃발이 움직였다. 두 승이 논쟁하는 소리를 듣자니 한 승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승은 깃발이 움직인다 했다. 논쟁이 오갔지만 도리에는 맞지 않았다. 혜능은 곧장 '바람과 깃발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실로 그대들의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우연히 그 말을 엿듣게 된 인종은 깜짝 놀라며 기이하게 간주했다. 다음 날 혜능을 조실로 맞아들여 바람과 깃발의 뜻을 물었다. 혜능이 그 이치를 설명했다. 그러자 인종은 제자의 예를 취해 선요를 청했다.]

하권에서는 군신숭신문(君臣崇信門)이라는 제목으로 36칙을 선별해 재가인들 가운데서도 선문에 귀의해 활동한 내용을 수록했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동광제가 흥화존장 선사에게 물었다. "과인이 중원에서 보배 하나를 얻었는데 값을 매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디다." 흥화가 말했다. "잠깐 폐하의 그 보배를 보여주십시오." 황제가 두 손으로 복두건의 끈을 잡아당겼다. 이에 흥화가 말했다. "군왕의 보배에다 누가 감히 값을 매기겠습니까." 그러자 황제가 크게 기뻐했다.]

〈선문보장록〉 구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총 86칙에 대해 각각의 전거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전거가 지니고 있는 선문의 우위성을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음과 더불어 이들의 모든 내용은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입장에서 선과 교학의 일체와 합일 나아가서 선문의 우월성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귀일시키고 있다.

전체 36종의 출전 문헌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15종이고, 멸실된 것은 3종이며, 미상은 20종이다. 현존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가태보등록 ②경덕전등록 ③달마비문 ④벽암록 ⑤봉암산흥법사진공대사충담탑비 ⑥선림승보전 ⑦선원제전집도서 ⑧송고승전 ⑨오등회원 ⑩인천안목 ⑪전등대주선사문답오칙 ⑫전법정종기 ⑬종문무고 ⑭청평산문수원기 ⑮해동무염국사무설토론.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친견용 명품(名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 미리 알아 먼저 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육임CD 프로그램과 육임 친견용 활용서 -

● 지난 10년에 걸쳐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특히 귀신 · 빌미부정 · 귀물 · 묘지탈 적시 및 그 해소 방법이 백미 입니다. 유사(類似)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오행초보자도 즉시 자신있게 활용하여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CD프로그램 - 원터치 기능에 의한 당면 정황을 미리 알아 순서대로 철저히 구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승인 없이 여러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가 500만원

◀ 사주를 빼지 않고도 방문 시간별로 즉시 펼쳐 한 면 한 눈에 정확한 일생사 및 나이별 운세 등등 인생전반을 미리 판단하도록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60갑자일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 B4규격
정가 350만원

www.taotemple.net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 육임컨텐츠개발전문회사 육임나라 주식회사
대표전화 02)738-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주)